

인민의 복리를 위한 결심

2021 년 8 월 어느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비내리는 곳은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현장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건설장전경을 흐뭇하게 바라보시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이 많이 진척되었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이날 주택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어느한 살림집에도 들리시였다.

특색있고 호화스러운 살림집내부를 돌아보는 가운데 한 일군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 정말 희한하다고, 호텔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다고 말씀드렸다.

그의 말을 기쁨속에 들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이제는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의 자태가 완전히 드러났다고, 140 일전까지만 하여도 이곳에는 이런 현대적인 주택구가 없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으시였다.

우리가 140 여일동안 빈땅에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일떠세운것처럼 앞으로 140 년을 내다보고 인민들의 복리를 위한 결심을 하나하나 책임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이날 일군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것, 세상에서 가장 문명하고 눈부신 창조물들을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한시라도 더 빨리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진정을 실천으로 받아들일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